

# 학자금대출 못 갚는 청년 2만명 연체액 1100억, 3년 새 250억 ↑

### 한국장학재단, 연체 현황 공개 3년 만에 4300명 늘어 급증세 등록금 인상에 대출 수요 확대 제도개선 필요성 국회서 제기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2104명으로, 2022년 1만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



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1조2352억), 취업 후상환 20만6522명(8762억)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산학협력 마일리지 우수기업 50곳 발표

교육부·대한상의, 산학협력 성과 공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5일 ‘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기업 중에서 선정되며, 2년간 여신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교육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적합한 마일리지는 정부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 획득,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시험 응시료 일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우수기업의 주요 선정 기준은 산학협력 실적 점수(마일리지)이고 그 외에도 산학협력 활동 분야의 다양성, 고용·노동·산업안전 법령 등의 저촉 여부 확인 및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학생 채용 분야 실적이 높은 바디텍 메드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제조 업체로, 한림대, 강원대 등 강원 지역 대

학과 협력해 바이오·화학·빅데이터·경영 등 다양한 전공별 현장실습·인턴십을 통해 우수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화장품 개발·제조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도 2015년부터 대학의 화장품 분야 연구·품질·제조 관련 학과와 함께 현장실습을 운영하며 우수인재를 채용한다.

산학협력 장학금 분야 실적이 높은 사단법인 한국해운협회는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등에 매년 산학협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투기함태호재단은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위해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61명에게 총 9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매년 대학의 식품 발전 관련 연구·출판 과제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총 118명에게 11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25년 상반기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총 28개교 학생 378명이 참여한 학점 인정 현장실습을 운영했고, 특성분석·데이터센터 등을 통해 에너지·환경·바이오·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과 기업에 고성능 분석·공정·실험 장비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산·학·연 공동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 ‘원팀’ 본격화

### 25개 자치구와 첫 협력 워크숍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청 이관 현장·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서울시교육청이 16일 25개 자치구와 처음으로 ‘유보통합 공감소통 워크숍’을 열어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둔 현장·자치구·교육청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교육청과 자치구청 간 협력의 첫 공식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서울시청과 이관 대비 협의체 및 준비 협의회를 운영하며 상시적으로 협력해왔으나, 자치구청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는 부족했다.

이에 지난해 ‘찾아가는 자치구청 설명회’를 통해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시청 영유아 보육 사무 분석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치구청 사무 분석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도적 경계를 해소해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써 교육청으로의 이관은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계안

에서 영유아 교육력 강화는 물론, ▲중복 업무 해소 ▲행·재정 지원의 일원화 ▲현장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 안내, 정선아 숙명여대 교수의 ‘유보통합과 지방자치(영유아 중심에서 협력하기)’특강, 교육지원청-자치구청 실무자 간 소통·협력 활동, 서울시교육청 2025년 특색사업(교사대 영유아 비용 개선, 교육·돌봄 환경 개선, 책놀이 프로그램) 안내, 영유아보육 집중분석 추진 현황 및 계획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IT·돌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도입

외국인 E-7 비자 추천제 신설

경기도가 IT, 돌봄 등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경기도 맞춤형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15일부터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기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외국인이 특정활동(E-7)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제도로 설계됐으며,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외국인은 장기 체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상 직종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보안, 로봇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직(E-7-1)11개와 요양보호사(E-7-2)1개 직종 등 총 12개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최대 630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자는 학력·경력 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인력별 자격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김동택 기자 mk4303@

## 서울 첫 친환경 ‘한강버스’ 18일 출항

마곡~잠실 7개 선착장 연결 운행

서울의 새로운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수단 ‘한강버스’가 18일 첫 운항을 앞두고 안전과 서비스 등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안전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한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첫차)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 마곡에서 망원, 여의도, 옥수, 압구정, 뚝섬, 잠실

7개 선착장, 총 28.9km를 운항한다.

총 8척의 선박이 운항하며,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15분간격)을 포함해 왕복 30회(평일 기준)로 증편 운항

예정이다.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주말은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30분이며, 시민 눈높이와 요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말 이후에는 선박 4척을 추가로 인도해 연내 총 12척, 48회로 확대 운항한다.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며,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횡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단,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5 | 해질 / 18:39

9월 16일 (화)  
음력 : 7월 25일

수도권 날씨  
23 ~ 28°C

운동 지수: [4바탕]

빨래 지수: [3바탕]

세차 지수: [2바탕]

외출 지수: [4바탕]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獨기민당, 최대재 지방정부 수성... 극우 AfD 서부서 약진  
▲“CEO들, 노동자의 600배 벌어”... 교황 ‘조만장자 머스크’ 질타

/사진 뉴시스

▲러시아 북서부 키리시 정유소, 우크라 드론 공습에 화재  
▲“탈탄소화 어려움 인식”... EU, 내연기관차 퇴출 법안 재검토

▲정부 자본규제 과도... 스위스 UBS은행, 美로 본사 이전 검토  
▲인도산 수입품 50% 트럼프 관세 폭탄에... 美, 소상공인 ‘직격탄’